

최근 다발하는 소모성 질병 종류와 증상

작 년도 돼지가격은 우리나라에 양돈업이 정착된 이래 최고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돼지가격은 앞으로도 얼마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돈가 덕분에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기대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리라 생각된다. 필자가 아는 농장 사장님 한분은 지난 십년 동안 벌으신 돈을 지난 한해에 한꺼번에 벌으셨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돈가 속에서도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농장들도 있으니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장내 다발하는 소모성질병이 아닌가 생각한다.

농장내 다발하는 소모성 질병은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PMWS)과 돼지호흡기질병복합감염증(PRDC)등이 대표적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돼지ום, 자돈의 관절염, 삼출성표피염, 위축성비염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돼지호흡기질병복합감염증(PRDC)에 대하여 주로 언급하고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PMWS)에 대하여는 너무 많은 분들이 다루었으므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다.

1. 돼지호흡기질병복합감염증(PRDC)

돼지호흡기질병복합감염증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호흡기질병 원인체가 한 개체내에서 다발하는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 가장 일반적인 복합감염은 PRRS+홍막폐렴, 유행성폐렴+홍막폐렴, 더 나아가 PRRS+홍막폐렴+글래서씨 등이며, 처음에 감염되어 체내 면역력이나 방어기전을 떨어뜨리는 1차 원인체로는 PRRS, 유행성폐렴균(*Mycoplasma hyopneumonia*)등이 있고 실제로 폐사와 위축의 원인이 되는 2차 원인균으로는 홍막폐렴균(*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글

권 성 균 수의사
(주)선진 브릿지 랩



▲ 폐표면이 노란 섬유소 조직으로 덮여있다.



▲ 자돈들의 활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온등 밑에 포개져 있다.

래서씨균(*Haemophilus parasuis*), 파스튜렐라균(*Pasteurella multocida* type A), 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suis*) 등이 있다. 최근에는 1차 감염요인으로 써코바이러스 2형(PCV2), 인플루엔자(*Influenza*) 등이 관여되기도 한다.

가. 임상증상

다들 아시다시피 기침, 호흡곤란, 활력저하, 사료섭취량 감소, 폐사 등이다. 특히 폐사돈 중에는 위축돈보다는 정상발육돈이 많다. 발생일령은 전에는 육성기 이후에 다발하였으나 요즘은 이유자돈(35~70일령)시기에 다발한다. 이러한 폐사돈의 부검소견은 폐병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폐표면이 노란 섬유소 조직으로 덮여있으며 폐의 일부가 흉강에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흉막폐렴과 글래서씨 소견을 나타낸다.

나. 대책

여러 농장에서 경험하셨겠지만 돼지호흡기 질병복합감염증은 백신접종과 항생제 투약만으로는 근절 할 수 없다. 반드시 사양관리 그 중에서도 환기, 사육밀도, 음수량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환기의 경우 배기환기 위주

■ 사 례 1

모든 1,000여두 규모의 농장에서 지난해 10월, 11월에 약 1,000여두의 이유자돈이 폐사하였다. 이 농장은 PRRS 양성 돈군이었으며 자돈시기에 유행성 폐렴 백신과 흉막폐렴 백신을 접종하고 사료에는 CTC와 플로르페니콜 제제를 투약하고 있었다. 폐사돈의 부검소견은 대부분 흉막폐렴이었으며 위축돈보다는 정상 발육돈이 많았다.

방문시 이유자돈사의 온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자돈들이 전반적으로 활력이 없었으며, 사료섭취량

도 많이 감소된 상태였다.

방문 후 이유자돈사에 비닐덕트와 환을 설치해 입기를 강제로 넣어넣어 주는 입기위주 환기시스템으로 개조하여 신선한 공기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주었다. 또한 30두 규모의 한 돈방에 급수기가 1개밖에 없었으나 1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었다. 방문 1달이 지난 후 이유자돈의 폐사두수는 150여두로 감소하였으며, 폐사율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자돈들에게 PRRS 백신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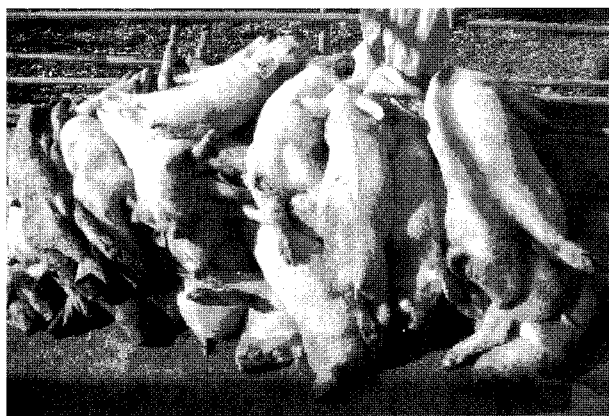
■ 사 례 2

1000여두 규모의 위탁장에서 자돈 전입 한 달 사이에 7%의 폐사율이 발생하였다. 자돈은 본장에서 유행성 폐렴 백신과 홍막폐렴 백신을 접종받고 전입한 상태였다.

위탁장 자돈들의 혈청검사에서는 PRRS와 PCV2가 양성으로 나왔으며, 홍막폐렴 항체도 높게 나왔다. 폐사돈은 비강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부검 소견은 전형적인 홍막폐렴 이었다. 농장관리자는 폐

사가 발생한 돈방의 모든 돼지들에게 아목사실린제 제 주사제로 치료하고 있었으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농장 방문 후 원치커텐을 관리자가 춥다고 느낄 정도로 개방한 후 아목사실린제제로 음수투약을 3일정도 실시하였다. 환기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폐사가 많이 발생한 후 돈군이 안정화되었는지 그 이후 폐사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 폐사돈들은 위축돈 보다는 정상발육돈이 많다.

보다는 입기환기 위주로 바꾸어서 신선한 공

기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농장의 돈사를 살펴보면 온돈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환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다.

농장사례를 들며 얘기해 보겠다.

2가지 사례에서와 같이 농장에서 PRDC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백신과 항생제에 대한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시 생각할 것은 돼지입장에서 바라본 기본에 충실한 농장관리이다. 특히 환기는 사람이 아닌 돼지의 체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사 례 3

모든 100두 규모의 농장으로 농장성적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돈 20여두를 다른 농장에서 구입 한 후, 구입한 임신돈이 분만사에 입식된 후 자돈이 분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만된 자돈들이 이유자돈사로 넘어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이유자돈사에서 폐사율이 50%이상 발생하였다.

방문시 이유자돈사의 자돈들은 거의 전부 포개져 있거나 위축되어 있었으며, 폐사돈의 부검소견은 살모넬라증, 홍막폐렴, 글래서씨 등 다양하였다.

모돈들의 혈청검사에서는 PRRS, 유행성폐렴균에 대한 항체가가 전부 양성이었으며, 글래서씨에 대한 항체가가 높게 나왔다. 자돈사에서의 어떠한 항생제 투약도 소용없었다. 농장에서는 자돈사를 완전히 비우고 수세 소독 후 자돈을 재입식하는 방법을 생각중이었으며, 필자가 방문 한 후 농장에서는 한 달이상 자돈사를 비운 후 수세 소독하고 보온과 환기시설을 보완한 후 자돈들을 입식하였다. 폐사율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임신돈 구입전의 생산성적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졌다.

2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PMWS)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
우리라 생각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
고 곧바로 농장사례로 넘어가겠다.<사례 3>

지금까지 고돈가 속에서도 농장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소모성질병인 돼지호흡
기질병복합감염증(PRDC)과 이유후전신성소
모증(PMWS)에 관하여 얘기하였다. 어떤이는
PRDC와 PMWS가 국내 양돈장의 체질을 개
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 맞는 말
인 것 같다. 이전에 농장사장님들은 돼지는
돼지같이 키워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양관리
와 돈사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신과 항생제는 나
중 얘기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농장관리를 하는것이다.

특히 PRDC와 PMWS가 문제인 농장은 더
욱 더...

PRDC, PMWS와 그 외 소모성 질병으로 고
생하는 농장에서는 고돈가가 끝나기전에 기본
에 충실한 농장관리로 하루 빨리 농장성적이 회
복되어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 **양돈**

전문가 무료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돈장의 고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영 및 정책 ▲수급 및 돈가 전망 ▲사료 ▲질병 ▲사양 ▲시설 및 환기 ▲분뇨
▲번식 및 육종, 인공수정 ▲육가공 및 유통분야 등 33명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상담

* 전문가 상담코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정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클릭하세요. 양돈농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양돈협회 www.koreapork.or.kr